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개최

KB금융그룹은 지난 4일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에서 'KB금융 피겨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장국환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유동한 선수, 하지유 선수, 박진영 KB금융지주 브랜드담당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KG그룹, 새해맞이 산행… 경영목표·전략 공유

KG그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그룹 임직원과 함께 새해맞이 산행을 진행하고, 2026년 재도약을 위한 경영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는 '2026년 사업계획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산행에는 꽉채선 회장을 비롯해 가족사 대표 및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건강과 안녕, 그룹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KG그룹



스타벅스코리아, 청소년 희망카페 '달다' 오픈

스타벅스 코리아는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와 손잡고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능 기부 카페 '15호점 청소년 희망카페 '달다''를 오픈했다. 5일 '달다' 오픈 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KT&G
인니 공장 'ISO 45001' 인증

KT&G 인도네시아 공장이 국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2024년 러시아, 튀르키예 공장이 동일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공장이 추가로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KT&G는 해외에서도 국제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KT&G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공장의 ISO 45001 인증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KGC인삼공사
부여공장 봉사단 국무총리표창

KGC인삼공사는 부여공장 사회봉사단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5기 국민주천포 상수여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KGC인삼공사 부여공장 사회봉사단은 2010년부터 부여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으며 누적 기부금, 지속적인 현장 봉사, 사회복지기관과의 협력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봉사단은 부여공장 임직원 3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금융수장 총집결… “‘K자형 회복’ 만들어 나갈 것”

범금융 신년인사회

구윤철 부총리 등 생산적 금융 강조
벤처·혁신자본 세제 인센티브 강화

경제·금융당국수장(F4)이 한 자리에 모여 올해는 부분간 격차가 큰 'K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형일 제1차관 대독)은 "자금흐름을 첨단전략산업, 벤처, 창업, 자본시장 등으로 대전환하는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3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공급을 개시해 AI를 비롯한 신산업에 투자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정·관계 및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스

C), 코스닥벤처펀드 등 벤처·혁신자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장은 K자형 회복에 대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금융회사 기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하는 등 금융회사의 서민금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최우선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꼽고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시장과 열린 소통을 강화해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다고 예상되는 만큼 정부, 중앙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교촌에프앤비, 지난해 9.2억 규모 사회공헌 활동

치킨 나눔 등 따뜻한 정 전해



장을 돋기 위해 2022년부터 이어온 '아동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아동보육시설 및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

게 1만 1000마리의 교촌치킨(약 2만 명 분)을 전달했다. 약 2억 3000만 원 규모로 진행된 이 활동은 신학기와 어린이날 맞아 아이들에게 맛있는 추억을 선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치킨 소스 바르기 체험 등 체험과 교육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나눔의 의미를 확장했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훌로서기를 돋는 '자립준비 지원사업'에는 2억 1000만 원이 투입돼 총 174명의 청년 및 청소년을 지원했다. 교촌은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돋는 '마음채움 프로젝트'를 연간 30회 진행하며 아이들의 내

면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들이 '바르고 봉사단'에 참여해 특수학급 학생들의 체험활동 멘토로 나서는 등 '나눔의 선순환'까지 더해져 진정한 자립으로 나아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치킨을 매개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촌스러버 프로젝트'는 올해 미래 세대인 대학생들이 '촌스러버'가 되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촌은 1억 5000만 원 규모의 활동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봉사활동을 응원했다. 아울러 사회 구성원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이주배경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이밖에 산불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과 피해복구를 위해 애쓴 소방관, 경찰, 민간 지원봉사자를 위한 지원과 스포츠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전달 등으로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상생 활동을 꾸준히 펼쳤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휴롬, 상업용 착즙기 디자인 우수성 입증



휴롬의 상업용 착즙기 CE50(사진)이 '2025유러피안제품디자인어워드'와 '2025일본굿디자인 어워드'를 연속 수상했다.

5일 휴롬에 따르면 자사의 첫 상업용 착즙기 CE50은 기술을 집약시킨 전문가용 하이엔드 모델이다.

정밀한 기술을 고급스럽고 간결한 형태로 구현해 두 디자인 어워드에서 실용성, 독창성, 혁신성, 기술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요진건설산업 ◇사장 승진△건설사업본부 정찬욱

◆한림제약 ◇회장 △김정진 ◇상무 △문은경(매디칼부) △박형진(병원사업본부)

◆종근당(승진) ◇전무 △이규웅 ◇상무 △이주원 △이창식 ◇이사 △심영곤

△윤수미 △이진오 △송지수 △정병무

◆종근당바이오(승진) ◇이사 △김진오

◆경보제약(승진) ◇사장 △김태영 ◇전무 △채현숙 ◇상무 △김병옥

◆월요신문(승진) ◇편집국장 이상훈 △정치사회문화부 부장대우 박윤미

◆뉴스퀘스트(신규) ◇부사장 △편집국장 △나영필(승진) ◇부사장 △김동호

부음

▲양병호(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관리국장)씨 별세, 안효순 씨 남편상, 양수현 양 부친상 = 5일 오전 1시 25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전북 남원시 보절면 선영. (02)440-8800

'국민배우' 안성기 별세… 향년 74세



이 있으며, 여러 시대의 감독들과 협업해 왔다. 2019년 혈액암 진단 후 투병 생활을 했으나, 2023년까지 부천판

는 폭넓은 장르 접근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해 냈다. 이러한 그의 삶은 한국 영화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국민배우'라는 수식어가 본질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만들었다.

대종상·백상예술대상·청룡영화상·영평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그가 거머쥔 트로피만 40개가 넘는다.

안성기는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공익적 활동에도 앞장섰으며, 스크린 쿼터 사수 등 다양한 영화계 사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오래 연기하는 게 꿈"이라며 성실함과 존중받는 배우를 지향했고, 후배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안성기는 개인적 사생활에서도 변함없이 모범적이었으며, 구설수 하나 없이 높은 인성을 유지했다. 산업영화와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

한국 영화산업 발전 중추적 역할

국민배우 안성기(향년 74세)가 5일 별세했다. 1957년 김기영 감독의 '황훈 열차'로 데뷔한 이래, 그는 70년간 한국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안성기는 약 140여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발전과 변곡점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연기 인생은 크게 세 시기로 나뉘며, 각 시대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모와 장르적 실험을 담아냈다.

안성기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칠수와 민수' (1988), '투캅스' (1993), '실미도' (2003), '라디오스타' (2006) 등

이다. 최근에는 '국민배우'로 불리워지면서도, 그의 연기 실력은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최규준 기자 ch9720@